

2018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신문에 말을 걸다 4

제1강좌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

문 안 식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서남해지역 해양문화』 『요하문명과 예맥』

일 시 3월 15일(목) 저녁 7시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

문안식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차례 -

- I. 서언
- II. 신라의 무진주 설치와 군현 통폐합
- III.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상왕국 건설
- IV. 도선국사와 지리도참, 경주 중심론적 국토관의 붕괴
- V. 후삼국 통일전쟁의 분수령, 후백제·태봉의 영산강 유역 공방전
- VI. 현종의 나주 몽진과 팔관회 개최
- VII. 대몽항쟁과 진도 해상왕국 건설
- VIII. 호남 르네상스를 위한 제언

I. 서언

1. 호남의 공간적 범위와 형성 시기

1) 호남의 공간적 범위

- 금강 이남
- 만경강 이남
- 김제 벽골제 이남
- 고부의 놀제 이남
- 익산의 황등제 이남

2) 호남의 형성 시기

- ‘호남’ 지역공동체의 형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그 대신 ‘전라도’의 형성 시기는 문헌을 통해 확인 가능

2. 전라도의 형성과 시기

1) 전라도 定名 : 고려시대 1018년(현종 9)

- 전북의 江南道와 전남 海陽道를 합해 '전라도' 형성
- 전주와 나주에서 한자씩 취함
- 제주도 역시 전라도에 속함
- 2018년은 전라도가 형성된 지 1천 년이 되는 해

2) 다른 지역의 상황

- 경기도 정명 : 1018(현종 9)
- 경상도 정명 : 1314(충숙왕 원년)
- 충청도 정명 : 1352년(공민왕 5)
- 강원도 정명 : 1395년(조선 태조 4)
- 평안도 정명 : 1413년(태종 13)
- 황해도 정명 : 1417년(태종 17)
- 함경도 정명 : 1509년(중종 4)

※ 전라도는 경기도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역사와 빛나는 문화전통을 보유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3. 강연 주제

1) 전라도 定名 1천 년을 맞이하여

- 형성기 전후의 '한국사 혹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호남의 위상과 역할
- 당시 호남이 한반도의 변방지역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또 다른 세상의 중심을 형성한 내용과 과정
- 그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여 '호남 르네상스'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같이 고민

2) 신라의 무진주 설치와 광주의 부상

- 신라의 무진주 설치와 군현 통폐합

3) 바다를 활용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5가지 소재

- 장보고와 청해진 해상왕국
- 도선국사와 지리도참
- 후삼국 통일전쟁의 분수령, 후백제와 태봉의 榮山內海 공방전
- 현종의 나주몽진과 팔관회 개최
- 대몽항쟁과 진도 해상왕국

II. 신라의 무진주 설치와 군현 통폐합

1. 신라는 노령 이남지역을 점령한 후 發羅州 설치

- 신문왕 6년(686) 발라주를 금산군으로 강등하고, 무진주를 신설하면서 州治를 광주 일대에 배치
- 노령 이남지역의 중심지가 남해만 연안을 벗어나 내륙 방면의 광주로 옮겨진 계기

2. 신라의 무진주 설치와 9주제 정비

- 지방통치는 군정적인 상태를 벗어나 민정적 측면이 강한 행정지배로 전환(지방관의 명칭 변화, 군주→총관→도독)
- 신라의 지방통치는 군사제도의 개편을 통해 보완
- 지방의 모든 군현에 관리를 파견하는 등 전제왕권 형성을 위한 토대 마련

3. 무진주 치소의 위치

- 무진주의 치소는 광주광역시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자리한 무진도독성 내에 마련
- 무등산 일원에는 '무진고성'으로 불리는 배후산성 축조

4. 신라는 무진주를 설치와 직할현 구성

- 현웅현, 용산현, 기양현을 직할 현으로 편성
- 광주 일원이 무진주로 불린 시기는 신라가 백제를 통합한 이후, 백제 때는 '州'가 아니라 일반 군현 설치
- 직할 현의 설치를 통해 州治의 유지에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확보, 옛 남해만 연안에 자리한 금산군 등을 견제하는 역할

III.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상왕국 건설

1. 장보고 활약 이전의 신라사회 모습

- 신라는 혜공왕 때 이후 잦은 반란 발생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왕위다툼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자영 소농민 몰락

- 중국의 해적선이 서해에 창궐하여 백성을 약탈하여 노예를 삼는 등의 만행
- 지방민 일부는 바다를 건너 당나라의 절동 지방에서 곡식을 구걸하였으며, 해적이 되어 일본 대마도를 침입
- 신라를 떠나 唐과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생겨났음

2. 장보고의 신라에서의 활약

- 장보고가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간 시기는 20대 초반, 812~814년 무렵
- 唐은 安史의 亂(755~763)이 일어난 후 급속히 쇠퇴하여 번진발호
- 장보고는 王智興의 부대에서 활약(무령군의 군중소장)
- 군대에서 나와 신라로 귀국한 828년 무렵까지 재당 신라인들을 조직화
- 중국의 동해안 일대와 양자강, 京杭大運河, 강소성과 절강성 그리고 산둥성 일대의 항구 등이 주요무대
- 조선업·선원·상인·해운업자·제염업·목탄생산과 국제무역 등에 종사

3. 장보고의 귀국과 해상왕국 건설

1) 장보고의 활약

- 해적들의 소탕을 주장하여 흥덕왕의 허락을 받아 청해진 설치
-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삼아 한반도 서남해안 군소 해상세력 장악
-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와 당 및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 독점

2) 해상왕국 건설

- 서해 횡단항로 외에 서해 남부 사단항로를 적극 활용, 신라와 중국의 남부 지역 및 일본 연결
- 장보고 휘하에서 동아시아 해역을 무대로 대외무역을 독점한 집단은 재당 신라인이 주류
- 산둥반도의 赤山村과 신라의 淸海鎭 그리고 일본의 大宰府에 무역 근거지를 두고 서해 및 동중국해를 무대로 활동하던 크고 작은 해상세력 집단 통제
-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를 연결하는 남양항로를 이용한 선단과 연결하여 남북의 무역망을 하나로 통합

3) 장보고 피살

- 영장의 장보고 암살
- 청해진 해체와 해양활동 공간의 진공상태 초래

4. 청해진의 역사적 의미

1) 일국사적 의미

- 청해진 해상왕국은 신라사회와는 달리 여러 갈래의 이질적인 집단이 참여
- 장보고 휘하에는 신라와 당의 변경에 있던 사람들이 유능한 막료로 활동
- 장보고와 그 막료들이 이룩한 계층구조는 골품체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새로운 사회의 출현 준비

2) 지역사적 의미

- 경주 중심에서 벗어나 변경에 위치한 청해진을 비롯한 서남해지역이 동아시아 역사무대의 중심으로 부상
- 장보고와 청해진의 주요 활동 무대는 내륙이 아니라 해상이었고, 한국사 발전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
- 고대사회 해체와 중세사회를 향한 나말여초 전환기의 선구적 역할

IV. 도선국사와 지리도참, 경주 중심론적 국토관의 붕괴

1. 선종의 전파와 사상계의 변화

1) 교학불교의 융성

-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귀국과정 및 山門의 개창과 유지에 청해진의 도움, 그 대가로 장보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
- 불교 교단을 비롯한 사상계 역시 중국을 다녀온 유학승을 중심으로 교종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 화엄사상 등 교학불교는 왕실과 귀족 중심의 경향을 띠었고,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율령체제를 뒷받침하는 구실

2) 교학 불교의 침체와 선종의 수용

- 景德왕(742~764년)의 후반기부터 교종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교학연구 역시 침체
- 전제왕권 파탄과 국정 운영의 난맥 속에 교학 불교가 침체되면서 참선과 실천적 수행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남
- 참선과 염불 등으로 '화두(話頭)'를 일순간에 깨우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종(禪宗)이 등장
- 선종은 도의(道義) 등 중국 유학승에 의해 도입

3) 선종의 발전

- 도의 이후 홍척(洪陟)과 혜철(慧哲) 등이 선종을 적극 전파
- 홍척과 혜철은 실상산문과 동리산문을 개창하는 등 선종의 발전 주도
- 당(唐)의 회창폐불(會昌廢佛)과는 달리, 신라의 선문(禪門)은 독자적인 선풍을 드러내면서 9산 선문으로 발전

2. 서남해지역 산문의 개창과 후원세력의 역할

(1) 9산선문의 개창

- 산문 개창은 홍척(洪陟)이 836년 남원 실상산문 개창에서 비롯
- 흥덕왕은 개혁정치를 추진하면서 홍척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상이 필요
- 선종은 복잡한 교리를 떠나 심성 도야에 치중하고, 참선 등의 단순한 수양 방법을 통해 호족들의 호응
- 선종 자체가 혁신성을 띠고 있었기에 새로운 사회건설을 꾀하는 6두품과 호족의 입장을 대변
- 불성(佛性)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신분의 고하를 묻지 않는 태도 등으로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

(2) 호남지역 선종 사원의 개창

- 선승들은 나말 여초 격변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 제시
- 나주 회진은 신라 하대에 활약한 고승의 비문, 숙위학생, 유학승 및 견당사 등의 출발과 도착 항구
- 서남해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9산문은 보조선사 체칭에 의한 가지산문(장흥 보림사)
- 동리산문과 가지산문의 존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무진주 일대를 선종 불교의 메카라고 칭하기도 함

3. 신라 왕권의 붕괴와 풍수지리의 영향

1) 호족들의 선승 후원

- 호족들이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자 신라 왕실의 권위 추락
- 선문은 지방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음
- 선종과 선승들은 무너져 내린 골품체제를 부정하고 지역사회의 실력자로 등장한 호족 세력의 이념적 지주로서 자리매김

2) 도선의 풍수지리와 비보사상

- 선종 외에 호족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사상은 풍수지리
- 풍수지리는 도선(道詵) 의해 집대성
- 풍수지리는 경주 중심의 국토관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국토 재구성안

- 도선은 산천의 순역형세에 따른 三國圖를 작성, 비보사상 정립

3) 새로운 시대의 등불을 밝힌 호남지역

- 도선은 왕건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앞서 견훤의 후원을 받으면서 친밀한 관계 유지
- 도선은 교종과 화엄학 중심의 고대 사유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상계의 등불 역할
- 서남해지역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는 선종이 뿌리를 내려 번성한 무대
- 도선의 풍수지리설은 고대를 넘어 중세를 향한 시작을 알리는 용트림

※ 신라의 천년왕국은 서남해 연안지역을 비롯한 호남 일대에서 가장 먼저 부정,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진이 시작되어 견훤의 후백제 광주 건국으로 이어짐

V. 후삼국 통일전쟁의 분수령, 후백제·태봉의 영산강 유역 공방전

1. 후고구려의 진출과 서남해 해상세력의 내용

- 영산강 중·하류지역은 오늘날과 달리 海水가 내륙 깊숙이 유입되어 內海 형성, 남해만과 덕진만 및 영암만 등이 존재
- 남해만 등의 연안 지역은 해상활동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 포구들을 중심으로 해상세력이 존재
- 서남해지역의 토착사회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후백제가 진출하면서 촉발
- 서남해지역 경략은 실패, 호족들은 압박을 느껴 903년 궁예정권에 복속 요청

2. 마진의 진출과 서남해지역 교두보 확보

- 궁예정권이 서남해지역으로 적극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마진 이후
- 마진이 서남해지역을 둘러싸고 후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까닭은 배후의 군사거점을 마련하기 위함
- 농산물과 해산물을 확보하여 군량미와 전략물자 등을 확보하고, 吳越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 구비
- 마진은 나주를 비롯하여 무안과 영광 등 영산내해 이북지역 차지, 서남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安邊拓境策 추진
- 후백제는 영산내해의 남쪽에 위치한 반남 일대에 병력과 전함 포진
- 양국은 영산내해 일대에서 수 차례에 걸쳐 陸戰과 海戰을 치르는 등 공방전
- 복사초리 전투와 북룡산 전투 등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마진이 주도권 장악

3. 태봉의 서남해지역 석권과 궁예의 친정

- 궁예정권은 서남해지역을 석권하는 기세를 몰아 마진에서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는 등 내정개혁을 통해 전성기 구가
- 태봉의 압박에 맞서 후백제의 반격도 지속적 전개
- 궁예는 후백제의 공세를 무력화 하고자 직접 수군을 이끌고 912년에 서남해 지역 친정, 덕진만에서 해전을 치른 후 주민들을 위무하고 철원으로 귀환
- 태봉의 서남해지역 지배는 고려의 건국 후 羅州道大行의 설치로 계승

VI. 현종의 나주 몽진과 팔관회 개최

1. 고려 초기 나주지역의 위상

- 왕건은 서남해지역 경략 과정에서 나주 吳氏, 영암 崔氏와 영광 田氏 등의 도움
- 서남해지역의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은 후삼국통일 전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
-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자신의 후계자를 나주에 외가를 둔 장화왕후 오씨 소생으로 삼았음
- 나주는 서남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과 통치거점
- 태조 때에 전남 일원에서 전국에 걸쳐 12牧을 설치하면서 전남지역의 경우 나주와 승주에 한정

2. 현종의 나주 몽진과 우대정책

- 현종 때에 4都護, 8牧 및 56知州郡事, 28鎭將.20縣丞을 설치. 승주는 승평군으로 강등, 나주는 牧의 역할을 계속 담당
- 江南道와 海陽道를 합할 때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한자씩 취하여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겨남
- 나주가 승주와 광주를 배제한 채 노령 이남지역을 대표하는 지방통치의 거점으로 성장한 배경은 현종의 몽진과 관련
- 현종은 1011년(同王 2) 정월에 거란의 침입을 피해 나주에서 열흘 가까이 머물다 개경으로 환도
- 현종은 거란을 물리친 후 집권체제 정비, 몽진과 왕조 興復에 도움 준 나주 지역 적극 배려
- 나주목은 전남지역 대부분과 제주도까지 관할
- 암태도와 장산도 등 서남해의 여러 도서를 羅州群島로 부르게 됨

3. 나주 팔관회 개최

- 나주지역이 왕조 중흥에 기여한 사실을 높이 평가,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우대

- 宋 등 여러 국가의 사절 및 상인 등이 왕래하는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
- 나주 팔관회는 현종(재위기간 : 1009 ~ 1031) 때 약 20년 동안에 걸쳐 개최
- 국내외를 연결하는 해상활동의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역사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 팔관회 개최가 가능
- 나주목의 객관이 자리한 금성관 일대에서 개최, 서경의 팔관회와 마찬가지로 祖上祭의 성격을 띤 藝祖祭
- 왕실의 조상신과 금성산신에게 祭儀를 올린 후 외국 사절과 상인 등의 朝賀를 받는 순서
- 팔관회는 불교와 민속적 요소가 결합된 제전
- 나주 팔관회는 서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폐지

VII. 대몽항쟁과 진도 해상항국 건설

1. 국가형성과 해륙병진

1) 진도 입거의 배경

- 삼별초는 서해 연안과 도서지역 일대에 항전의 거점을 마련, 최종 기착지로 제주도를 대신하여 진도 선택
- 삼별초가 진도를 항쟁의 새로운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
 - : 진도는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강화도에 비해 수비와 방어에 유리
 - : 몽골군이 두려워하는 海中島嶼에 위치
 - :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에서 거뒀진 조곡의 수송선이 왕래한 길목에 자리
 - : 비옥한 농토와 넓은 평야가 존재
 - : 개경조정과 본토 주민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거점 마련
 - : 방어에 유리하고, 서남해 연안 도서 장악과 본토 진공작전 가능

2) 국가체제 수립과 영역확장

- 진도에 입거한 후 왕궁 조영과 방어 거점 확보 및 영역확장, 주변국가의 외교 교섭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체제 정비
- 삼별초는 남부지역을 장악한 후 개경조정과 자웅을 겨루고자 했고, 영역확장을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
 - 제1단계는 진도에 입거한 직후부터 전라도 영유권 확보에 주력(1달 남짓)
 - : 개경정부와 몽골군의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악화된 민심에 편승하여 전라도 일대를 점거
 - 삼별초의 제2단계 군사작전은 진도에 입거한 지 3달이 되는 11월을 전후하여 시작
 - : 삼별초는 벽파진 부근에서 전개된 해전에서 여몽연합군의 수군을 격파하는 등 승세를 장악

: 몇 차례에 걸친 해전의 승세를 타고 11월 제주도 점령

- 삼별초는 내륙지역 공략이 점차 어렵게 되자, 연안의 포구 장악 및 여러 섬들을 점거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기항전에 대비하는 제3단계 군사작전 돌입

2. 해상왕국 건설과 대일외교

- 삼별초는 대몽항전에 일본을 끌어들이려 연합군의 전력 분산 시도
- 삼별초의 수군 활동 작전 반경이 동래를 포함한 부산 일대까지 확대되면서 서남해와 남해안 전역의 여러 도서지역 장악
-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 등 30여 곳 이상의 도서지역 장악,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조운로를 통제
- 장기항쟁을 통해 여몽연합군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본토를 수복한 후 개경 정부를 병합하려는 ‘統合三韓’ 의도를 일본에 알림
- 삼별초가 장악한 여러 도서는 王濶 황제가 통치하는 영토였으며, 진도는 海洋皇國의 수도
- 여몽연합군은 병력을 증강하고 전선을 보충하는 전력을 재편하면서 공도정책을 실시하여 삼별초의 고립 도모
- 여몽연합군은 삼별초가 용장산성에 든 지 아홉 달이 지난 원종 12년(1271) 5월 15일 1만 2천 병력을 1백 척의 전선에 태워 총공격
- 삼별초는 진도에 도읍을 마련하고 海洋皇國을 세운 지 9개월 만에 붕괴
- 왕온 황제와 배중손은 전사했고, 김통정이 살아남은 소수 병력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들어가 재차 항전

3. 고려 후기의 해양정책 변화

- 고려는 삼별초의 항전이 끝난 후 개방모드에서 폐쇄모드로 전환
-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고 70여 년이 흐른 후 왜국의 출몰 등으로 인해 해상활동 금지
- 海禁政策과 더불어 섬을 비우는 空島政策 추진
-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 도서지역의 군현은 대부분 폐지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육지로 옮김
- 서남해 연안 및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떠나면서 바닷길은 막힘
-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공도정책과 해금정책은 지속, 조선과 明 사이를 왕래 하는 사절들은 바닷길보다는 주로 육로를 통해 왕래
- 서남해지역은 일본의 침입과 약탈 행위, 중국 방면에서의 선박 표류 등을 제외 하고 외국 사절 및 상인 등과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남해 연안과 영산내해는 외국과 접촉이 차단되어 닫힌 공간으로 변모

VIII. 호남 르네상스를 위한 제언

- ◆ 서남해 연안지역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와 소통을 통해 또 다른 천하를 이루던 역사와 문화전통의 단절
- ◆ 호남은 중앙정부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 혹은 변방으로 자리매김
- ◆ 인터로컬(interlocal)시대와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호남의 부흥은 교류와 소통의 전통을 부활과 계승해서 시작해야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수립에 대비
- ◆ 영산강 유역의 마한-백제-신라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문화전통과 국제문화 교류 성격 강조
- ◆ 독자적인 문화권 설정과 성격 연구

[강사 소개]

문 안 식

현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고대사 전공(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문학박사. 조선대박물관 특별연구원,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조선대학교 사학과 객원교수, 전남문화재연구소장 등 역임

논저로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방통치』(2002), 『한국 고대사와 말갈』(2003), 『한국 고대의 지방사회』(2004), 『백제의 흥망과 전쟁』(2006), 『백제의 왕권』(2008), 『후백제 전쟁사 연구』(2008),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2010), 『요하문명과 예맥』(2012),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한반도 서남해지역 해양문화』(2016) 등 다수가 있으며, 공저로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2009), 『나말여초 신승겸 연구』(2016) 등이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헌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3월 15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